

龜文의 背景 小考

具 仁 淑

| | |
|---------------------------|---------|
| -----〈目 次〉----- | |
| I. 序 言 | B. 玄武形 |
| II. 龜에 關한 說話 및 龜의 象徵的인 意味 | IV. 龜甲文 |
| III. 龜文의 實物考察 | V. 結 言 |
| A. 거북 또는 자라의 單獨形 | |

I. 序 言

거북은 龍·기린·鳳과 함께 古代中國에서는 四靈의 하나였고 특히 거북이 뱀을 감고 있는 것을 玄武라고 하였다. 「禮記」에는 東青龍, 西白虎, 南朱雀, 北玄武로써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四神으로 看做하였다. 四神의 구성은 시대의 문화감각의 차이로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시대가 용기를 희구했던 때는 順한 기린으로부터 대담 무쌍한 白虎로 대치되었고, 시대가 禮를 중시하였던 때는 鳳이 朱雀으로 대치되어 나타났다.

그런데 거북은 용과 함께 변함없이 四靈(四神)의 하나로 璧畫 등에서 四神圖를 장식하고 있으며, 瑞兆로서 鶴과 함께 장수의 상징으로 존재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거북과 관련된 설화 및 그 상징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예술품을 통해 거북의 표현양식을 살펴보며, 특히 染織品 및 의복의 文樣으로

써 龜甲文의 의미를 추구해 보고자 한다.

거북문은 長生文중의 하나로 長生文에 포함되어 자주 언급이 되어 왔으나 거북의 甲羅의 형태를 가진 龜甲文은 染織品을 비롯한 각종 공예품에 빈번이 나타나는 문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先行 연구가 없었으므로 이것을 龜文의 범주에 포함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龜에 關한 說話 및 龜의 象徵的인 意味

거북은 파충류에 속하며 甲을 가진 기이한 느낌을 주는 동물이다. 특히 甲속에 머리·꼬리 및 四肢를 감추었을 때는 마치 무생물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며 그 甲으로부터 머리·꼬리 및 四肢를 드러내어 운동을 하는 까닭에 고대인에게는 신기한 존재로 생각되어 거북 및 龜甲에 關한 여러 가지 관념을 낳게 되었다.

고대 중국인이 거북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를 推察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는 盤古傳說과 古文獻中에서 『河圖·洛書』¹가 있다.

1. 前漢末에 만들어진 識書.

반고전설이란 중국의 개벽설화로 고대 중국에서는 천지가 처음에 하나의 卵같은 것으로부터 盤古氏가 태어나고 身長이 커감에 따라 天과 地가 분리되었다고 하는 전설이며 古圖에는 盤古氏와 함께 거북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거북은 天과 地를 나타낸다. 즉 거북의 등은 天圓을 이루고 있으므로 거북등은 天과 관련되어 吉祥의 상징이며 거북의 腹은 扁平하여 동서 남북 또는 사회 즉 國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거북은 天圓四方의 사상을 상징한다.²

한편, 고대 중국에서는 나라의 運을 점쳐서 점친 결과를 거북의 등에다 기호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거북껍질에 기호가 새겨진 것이 甲骨文字(甲骨文은 漢字의 母體가 되었다)³이고 갑골문은 인간생활의 지침으로서 天圓四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河圖·洛書』에 「洛汭之水靈龜負書」라는 記錄이⁴ 있다. 瞬龜가 書을 업는다고 풀이되는데 이로써 龜와 文字가 結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古來로 龜甲은 龜卜(거북등을 태워서 그 갈라지는 금의 형태를 보고 吉凶을 점치는 것)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거북의 등이 天圓을 나타내므로 신과 인간의 媒介物로서,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占의 자료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신령한 거북이 書를 업는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그 根低에 龜가 物을 업는다는 성질을 推察할 수 있고 이것은 後述할 거북의 새로운 속성인 長壽의 상징으로 존재하게 한다. 그러면 먼저 거북이 物을 업는 성질을 기록에 의하여 추찰해 보기로 한다.

『拾遺記』卷二에 「禹盡，力溝洫，導川，弟岳，黃龍曳尾於前·元龜負青澤於後」라는 기록이 있다. 이 책은 후세의 潤色이 많은 기록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거북이 物을 업는다고 하는 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상의 基低에는 龜甲의 실제 형태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晉書』卷81 毛寶傳⁵에는 거북이 物을 업는

다는 사실로부터 발전하여 人을 태우는 경우이고 또한 여기서 看過할 수 없는 것은 거북이 感謝하여 恩惠에 보답한다고 하는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晉書』卷七十八 孔愉傳과 『搜神記』卷二十에는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孔愉가 젊었을 때 길을 가던 중 거북을 바구니에 넣고 가는 사람을 만났다. 孔愉가 그것을 사서 餘不溪라고 하는 谷川에 놓아 주었다. 그런즉 거북이 물로 헤엄쳐 들어 가면서 몇 번이고 왼쪽의 둑에서 있는 孔偷를 돌아 보는 것이다. 이윽고, 孔偷는 그 功으로 인해 餘不亭侯에 봉하여지고 거기에서 銅의 職印을 주조시킨바 印의 꼭지가 된 龜首가 左로 향해버려 몇 번이나 고쳤으나 바로 잡지 못하여 그대로 사용하여 그후 더 큰 벼슬에 올랐다.」는 것이다.⁶

『太平御覽』과 『華陽國志』에,
 「秦惠王十二年 張儀司馬錯破蜀，儀因築城，經頽壞。後有，一大龜從硎而出，周行旋走，乃依龜行所築之乃成」

이라는 文句가 인용되고, 이 내용은 『搜神記』卷十三에도,

「秦惠王二十七年，使張儀築城都城，屢頽，忽有大龜浮於江，至東子城東南隅而斃，儀以問巫巫曰依龜築之便就故名龜化城」

이라고 있어 약간 표현 형태를 달리한 동일의 설화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자의 「乃依龜行所築之乃城」을 그대로 풀이하면 「靈物인 龜는 가장 安泰한 城地의 윤곽을 周行旋走함으로써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며, 후자는 龜는 東子城의 구석까지 와서 죽어버려 그 이유를 무당에게 물은즉 무당이 대답하기를 “거북 위에 城을 쌓으라”고 하여 張儀가 그 말대로 한즉 ‘城이 곧 완성되어 이 성을 龜化城이라고 하였다」⁵는 것이다. 이 예는 龜가 城地를 업는다고 까지는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거북에 의해 城을 짓는다고 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역시 그 根低에 거북이 物을 업는

2. 渡辺素舟：東洋文様史, p. 516 – 518.

3. 白川諍：甲骨文の世界, p. 12 – 32.

4. 出石誠彦：支那 神話傳説の研究, 「巨鼈負山の説話の由來について」참고.

5. 出石誠彦：Ibid.

6. 出石誠彦：Ibid.

다고 하는 思想이 存在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거북이 物을 업는다는 사실은 『淮南子』 卷六 覽冥訓과 『論衡』의 談天篇에도,

「往古之時 四極廢, 九州裂, 於是女媧鍊五色石, 以補蒼天, 斷鼈足, 以立四極」

라고 보인다. 이것을 풀이하면 옛날에 四極이 무너지고 九州가 쪼개질 때 이에 女媧가 五色의 돌을 다듬어 蒼天을 깊고 큰 거북의 다리를 잘라 四極을 받쳤다는 것이다. 『淮南子』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論衡』의 著者 王充은 이說話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漢代人은 적어도 큰 거북의 다리로 天을 받쳤다는 설화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거북은 天圓四方의 사상을 상징하며, 또한 거북은 靈이므로 길흉을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看做하여 점을 치는 신성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거북은 呪術的인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거북은 書를 업거나 人을 태우거나 또 天을 받치거나 그리고 大地를 업는 등 거북이 物을 업는다는 성질로부터 출발하여 거북의 새로운 속성인 장수의 상징을 낳게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북이 神仙思想과 결합하여 鶴과 함께 장수의 상징으로서 각종 工藝品에 나타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래 神仙界란 현실세계와 완전히 隔絕한 세계는 아니지만 상투적인 수단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곳으로 蓬萊, 方丈, 瀟洲의 三神山을 말한다. 이곳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仙人이 사는 하나의 유토피아이며 仙人이 된다고 하는 것은 昇天해서 신들과 한무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신선사상은 고뇌에 찬 인간의 현실세계를 超脫하고 영원의 생명을 얻어 인생의 쾌락을 무한히 享受할 수 있는 유토피아에의 飛翔을 보증하는 救濟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不死의 探究가 문제로 되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했을 때는 현실세계조차도 그대로 유토피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⁶

神仙思想과 거북의 결합과정을 더듬어 보면 「楚辭」 天問篇에 ‘鼈戴山抃, 何以安之’라고 있

어 거북이 山을 업는다고 풀이되고, 『列子』 卷五 湯問篇에,

「渤海之東, 不知幾億萬里, 有大壑焉, 實是無底之谷, 其下無底, 名曰歸墟, 八纊九野之水, 天漢之流莫不注之, 而無增無減焉, 其中有, 五山焉, 一曰岱輿, 二曰員嶠, 三曰方壺, 四曰瀛洲, 五曰蓬萊, 其山高下周族三萬里, 其頂平處九千里, 山之中間相去七萬里, 以爲隣居焉…而五山之根, 無所連著, 常隨潮波上下, 往還不得暫時焉, 列聖毒之, 訴之於帝, 帝恐流於四極天郡仙聖之居, 乃命禹彊使巨鼈十五舉首而戴之, 送爲三番, 六萬才一交焉」

이라고 記錄하고 있다. 여기에는 더욱 복잡한 사상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거북이 山을 업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 거북이 봉래산을 업는 것(그림 1)은 劉向의 『列仙傳』, 張衡의 『思玄賦』, 郭氏의 『玄中記』에도 보인다. 그리고 큰 거북이 山을 업는다



〈그림 1〉 蓬萊山蔵繪袈裟箱



〈그림 2〉 北海真人像車由明吳偉

고 하는 사상은 거북이 물에 뜬다는 사실과 天柱인 崑崙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육지의 사방에 바다가 있다고 하는 四海의思想, 바꾸어 말하면 大地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다고 하는觀念과의 사이에 다소의 聯想이 작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상이 더욱 발전하여 唐의 楊濤의 「巨鼈冠靈山賦」에서 는 거북과 仙人과의關係가 結成되어 있다. 또한 『列仙傳』卷上 桂父條에 「南海人見而尊事之 常服乃葵以龜腦和之」라고 있어 仙人이 거북을 타

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며(그림 2), 『洞冥記』卷二에는 이러한 내용을 더욱 확실히 해 주고 있다.

「…黃安은 代郡의 사람이고 나이는 80이 넘고 한
神龜의 2尺 넓이 위에 앉는다. 사람이 묻기를
이 거북에 앉은 것이 몇 년이나 되느냐고 한즉 대
답하길 옛날 伏羲가 처음 그물을 만들어 이 거
북을 나에게 주어 나는 거북의 등에 앉아 이미
편안하고 이 虫日月의 빛을 무서워하여 二千歲
에 한번 머리를 내 놓는다. 이 거북에 앉아 이
미 5번 머리를 내 놓는 것을 보았다. … 世人
이 생각컨대 黃安의 나이 萬歲가 된다」. 이 내용을 살펴보건대 不老不死의 仙人과 함께 거북도 不老不死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仙人과 거북이 結付한 또 다른 예로 『疑仙傳』에 있는 李陽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다른思想이 附加되어 있긴 하지만 거북이 仙人 또는 仙界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龜는 仙人과 결부되어 선인의 不老不死 즉 長生長壽의 속성을 轉移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述異記』에는 「龜千年生毛, 龜壽五千年謂之神龜, 壽萬年曰靈龜」라고 기록되어 있고, 『古今注』에도 鶴과 함께 長壽하는 動物로 表現되고 있다.⁸

그러므로 실제로 거북이 장수하므로 거북을不死로 생각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전술해 온 것과 같은 사상의 전개에 의해 관념적으로 불사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거북과 관련된 설화는 많다. 『해동고승전』에 나오는 거북의 이야기는 백제 때 「방제」라는 중이 절을 지으려고 여러 가지 貴重한 자료를 사서 배에 싣고 「난파신」이라는 곳을 지나 「골도」라는 섬을 밤중에 지나게 되었다. 그때 백사공들이 물건을 탐내어 방제스님을 바다에 떠밀었는데 이때 꼬리가 세 개 달린 큰 거북이가 나타나서 거북의 등에 업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이다.⁹ 여기에서도 거북의 忠直性과 物 또는 人을 업는 성질을 보여 준다.

또한 『별주부傳』의 거북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說話이고, 『三國遺事』 駕洛國記에 수록된 迎神歌와 『三國遺事』 卷二의 水路夫人 이야기 등은 해학적인 면을 담고 있으며 고구려의 朱蒙의 전설도 「我是曰天帝子河伯孫」이라 하고

있는데 河伯은 곧 거북이를 말하는 것이다.¹⁰

日本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는 많이 전하고 있다.

이상에서 거대한 거북이 物을 업는 성질로부터 轉化하여 山을 업고 人을 업고 나아가서는 仙山, 즉 仙界와 결합하여 仙界의 不老不死의 속성이 전이되어 드디어 거북은 장생장수의 상징으로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및 일본 등지에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예품에 나타나게 되었다.

III. 龜文의 實物考察

本章에서는 각종 공예품에 보이는 龜文을 뱀의 有無에 따라 分類하여 實例를 살펴보려고 한다.

A. 거북 또는 자라의 단독형

이것은 거북의 몸체에 뱀이 감긴 玄武形과 구별하여 거북만이 표현된 형태이다. 이 형태도 두 가지의 類型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하나는 거북만이 공예품을 장식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단독형이긴 하나 다른 동·식물 즉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단독형을 이루는 형태이다.

대체로 고대에 보이는 거북은 자라인 듯하다. 女媧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북도 자라이고 『列子』의 蓬萊山의 神山을 업은 이야기도 자라이다. 자라는 다소 거북과 다르나 거북류에 屬하며 바다거북으로 바다에서 나오고 크기는 1~2m정도의 큰 것도 있다. 甲形이 13~16個의 六角形을 가진다.

그러면 實物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그림 3〉 戰國 水陸攻戰紋
銅鑑 上武士及戰具 河南汲
縣山虎鎮出土

중국 전국시대의 「水陸攻戰紋銅鑑上武士及戰具」의 일부분(그림 3)에는 戰具를 손에 든 사람과 물고기 기타 다른 것과 함께 거북을 그리고 있다. 거북이나 물고기는 정체되어 圖式的인 느낌을 주고 있으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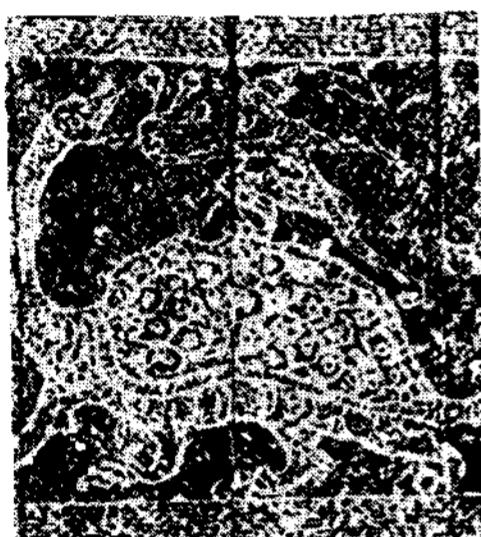
8. 小杉一雄：日本の文様, p. 123-125.

9. 趙子庸：한국의 미술, p. 26.

10. 出石誠彦：Ibid.



〈그림 4〉 陶盃 戰國

〈그림 5〉 長沙馬王堆墓
에서 나온 婦人服部分
B.C 2C中葉〈그림 6〉 畫像石의 部分
圖

盃」인데 거북 전체에 보이는 비늘로 인하여 다소 율동감을 察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이것보다는 조금 발전된 표현형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림 5·6의 경우이다. 그림 5는 前漢時代의 長沙馬王堆墓로부터 나온 婦女衣에 묘사된 그림이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 부분에 꼬리가 길고 머리에는 雲文같은 것을 장식하고 몸체에는 비늘형태의 施文이 있는 거북을 그리고 있다.

이것을 거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祥瑞로운 동물과 함께 그리고 있는 점이나 또 그 형태나 비늘 모습이 그림 6과 흡사하므로 거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림 6은 漢時代의 畫像石의 부분으로 비늘형태가 施文된 다소 영물스런 모습이나 거북인 것은 확실하다. 물론 이 시대에 無文의 거북도 많은데 無文의 거북에 비해 비늘형태의 甲을 가진 거북이 시대적으로 고대와 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북의 甲이 비늘형으로부터 角形으로 발전하는 시기는 漢末·南北朝時代에 이르러서이고 (그림 21-23 참조) 隋·唐에 이르면 定着하게 된다.

角形이 施文된 거북은 다소 엄격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좋은 예가 그림 7,8이다. 唐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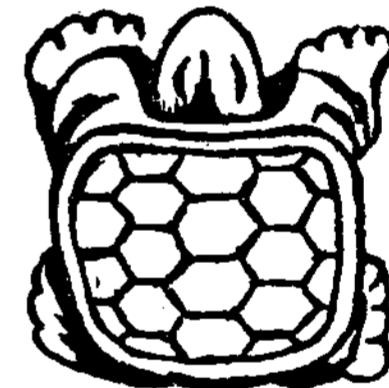
의 龜文押型(그림 7)은 正面에 거북을 陰刻하고 거북의 등에는 육각형을 새기고 그속에 「王字」를 새기고 있다. 王의 것인가는 확실치 않으나 「王」字를 새기는 것은 일반인용은 아니었던 듯 하며 押型이 거북文인 것은 역시 瑞兆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龜文押型의 陰刻技法과 유사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龜趺(그림 8)가 唐時代에 보인다. 龜趺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이는 것이나 唐에서는 드문 것이다. 龜趺의 등에는 龜文押型의 龜甲보다 훨씬 더 精巧한 龜甲이 施文되어 있고 거북의 모습은 엄격하다. 뚜껑에는 篆書로 「大書故司空公上柱國淮安靖公墓誌銘」이라고 있어 그 연대를 확인할 수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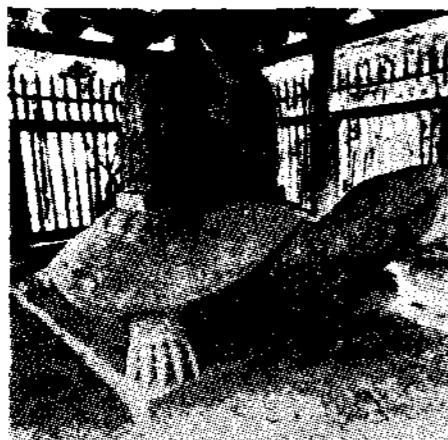
〈그림 7〉 龜文押型 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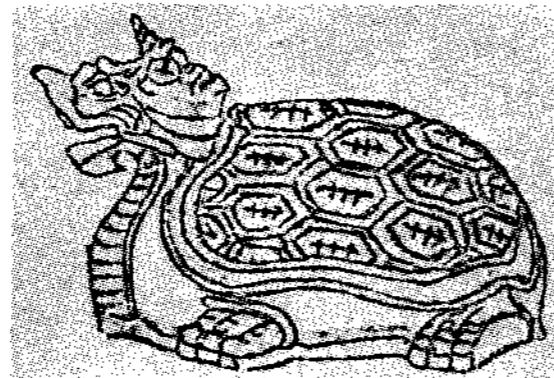
〈그림 8〉 李壽龜形墓誌 唐

〈그림 9〉 동물무늬 뚜껑의
거북 古新羅時代〈그림 10〉 博山臺座의
거북 古高句麗 강서出土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도 上古時代부터 거북이 施文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의 동물무늬 뚜껑에 뱀·말·돼지·사람 등과 함께 陰刻된 거북文이 보이며 그 技法은 원시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동물들과 함께 거북은 인간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듯하다. 거북이 物을 업는 사상이나 거북이 仙界와 결합한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博山香爐의 받침(그림 10)에 거북이 이용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博山은 바다 가운데의 蓬萊山을 나타낸 것으로 마치 神山인 博山을 거북이 업고 있는 造形을 이루고 있다.



〈그림 11〉 太宗武烈王陵碑
AB. 622 新羅



〈그림 12〉 青磁水滿의
거북 고려前伴

또한 거북이 物을 업고 있는 모습은 龜趺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太宗武烈王陵碑의 龜趺(그림 11)이다. 이것은 잔준된 龜趺中에서 最古의 것이며 전면 중앙 下部에 額을 만들고 「太宗武烈大王之碑」란 銘文이 있어 그 연대를 확인할 수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龜頭는 아주 寫實的이며 목을 길게 빼어 쳐들고 있는 仰形으로 突進하는 모습이며 6 각의 웅건한 龜甲은 그림 22-24와 흡사하다. 龜趺의 龜頭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怪獸形으로 神龜化하여 나타나며 고려·조선시대에 와서 龜趺는 대체로 龍頭龜身으로 표현된다. 그림 12는 高麗時代의 青磁가 유행하는 12세기 전반의 工藝彫刻의 세련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양식은 唐의 龜文押型(그림 7)과 흡사하며 이미 新羅土器에도 類型的인 先例가 있었으며 고려에 와서 더욱 세련됨을 보여준다. 龜頭의 눈은 철사로 나타내고 등에는 陰刻으로 龜甲을 새기고 六角속에 「王」자를 새기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거북문은 十長生文의 하나로 자수나 民畫, 木器, 漆器, 石造 등 각종 공예품에서 빈번히 나타나며 長生文으로써 애호되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림 13〉 天壽國曼茶羅의
銘文을 업은 거북. 飛鳥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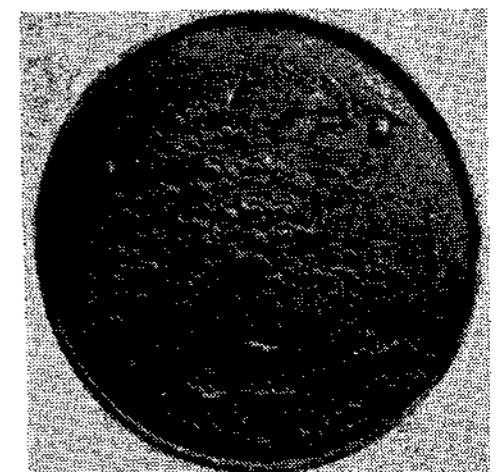
〈그림 14〉 正倉院御物鏡紋

13)이 있다.

거북은 영물이므로 거북에 聖德太子의 명복을 비는 銘文을 수놓아 呪術的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는 正倉院에 소장된 鏡으로 鏡의 꼭지가 거북으로 되어 있다. 이 鏡은 鑄物인데도 그 표현이 아주 섬세하고 文樣이 확실하여 당시의 일본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고 唐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鏡에서도 그 꼭지가 거북으로 장식된 것이 있고 日本에서도 그 예가 보인다.



〈그림 15〉
印籠 桃山時代



〈그림 16〉
蓬萊鏡 江戸時代

그림 15는 일본 桃山時代의 印籠이다. 이 인통은 武士가 携行藥을 넣어 허리에 찼던 것으로 자연을 배경으로 한 거북의 표현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북을 연상시킨다.

일본의 江戸時代에 이르면 거북은 鶴과 함께 長壽의 상징으로 각종 공예품에 표현되었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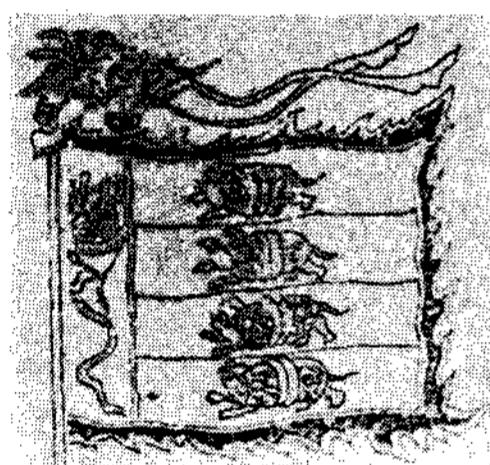
B. 玄武形

거북이 뱀을 감고 있는 것을 玄武라고 한다. 이것도 용이나 봉황처럼 상상적인 동물이다.『禮記』曲禮에 「東青龍, 西白虎, 南朱雀, 北玄武」라고 있어 玄武는 四神의 하나로 北方을 지키는 신인 것이다. 漢代의 문헌에 의하면 玄武의 형태는 거북만을 나타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後漢書』卷五十二 王梁傳에는 「玄武는 北方의 神이며 거북과 뱀이 합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현무의 형태는 처음에 거북만을 지칭하다가 나중에는 龜와 蛇를 합친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뱀과 거북이 한데 엉켜 있는 모티프로 나타나는 것은 漢代의 일로 소위 “草原의 길”을 경유한 서아시아의 動

日本에서도 거북文은 長生文으로 애호되었다. 일본 고대 飛鳥時代의 것으로 문자를 등에 업은 거북(그림

物爭鬪文에서 모방한 것으로 생각된다.¹¹ 또한 거북의 몸체가 怪異하게 되고 뱀이 더욱 더 寫生風으로 감겨 生動感을 짙게 한 것은 隋·唐代에 이르러서이고(그림 24-26) 漢代의 것은 뱀을 비교적 단순히 감아 불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그림 20, 21, 22)

漢末의 鏡의 뒷면의 銘文에 의하면 「龍虎는 禍를 脅하고 朱雀과 玄武는 陰陽을 다스린다」고 하고 있다. 『詩經』小雅出庫의 毛傳에 「龜蛇爲 旗」라고 있고 『說文』에도 「旗龜蛇」이라고 있어 玄武旗는 軍의 후방에 있어 形兆를 살피는 旗로 하고 있다.(그림 17)



〈그림 17〉 龜蛇旗 周代



〈그림 18〉 玄武旗
조선시대

『周禮』春官司常에도 「龜蛇象其豺難扞害也」라고 있어 勇捷도 구하고 또 狐와 野犬의 難과 해를 피하는 呪術의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王充의 『論衡』物勢篇에 의하면 「四獸含五行之氣」라고 있으므로 또한 五行說과의 關係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림 17은 龜蛇旗로 縣과 郡에 세우는 旗이며 『考工記』에 龜蛇四旒이며 玄室을 나타내는 億兆의 旗라 記錄하고 있다. 거북은 吉凶을 판단하므로 軍의 後方에 세워두고 사태를 살피는 표시로 하였다. 이와 같은 旗가 우리나라에서도 보인다.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玄武旗(그림 18)는 軍旗의 일종으로 黑色 바탕에 거북과 뱀이 엉켜 있는 모습에 雲氣를 그리고 青·赤·黃·白色의 네 가지 빛깔로 彩色하고 火焰脚이 있다. 현무는 북방을 지키는 神이고 북방의 星宿는 斗·牛·女·虛·危·室·壁의 七星이고 이것들은 軍事에 관한 星으로 해석되므로 軍旗에는 대체로 玄武를 그리고 陣營의 後門에

세워 後軍, 後營, 後衛을 지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玄武旗는 五方旗中의 하나로 陰陽五行說에 사상적인 배경을 두고 無事를 祈求하는 呪術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다른 형태의 玄武旗(그림 19)가 있는데 이것은 儀仗旗의 일종으로 青色의 三角旗에 금박으로 현무를 찍었다.¹² 1897년 고종황제의 儀仗旗로 使用하였다. 玄武는 旗 이외에도 많이 보이는 문양이다. 그림 20은 關野貞 博士의 拓本의 현무이다. 여기서 현무는 아주 소박하고 거북의 다리는 길고 머리에 뿔이 하나 있다. 아마도 想化的인 것이기에 뿔을 하나로 나타내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거북등에 龜甲이 묘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고대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9〉 玄武旗
창덕궁 소장



〈그림 20〉 關野貞博士
의 玄武 漢代 拓本



〈그림 21〉 瓦當의 玄武
前漢

그림 21은 前漢의 瓦當에 나타난 玄武文이다. 현무의 龜甲이 6각인 것 같으나 6각이 아니다. 그리고 중앙에 圓이 있는 점이나 뱀과 거북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점이 西아시아의 영향을 짐작하게 하며 隋·唐에 이르면 거북이 목을 뒤로 젖히고 뱀과 겨루는 듯한 意匠(그림 24, 25)이 나타난다.

그림 22는 前漢의 武帝(BC. 141 – AD. 87)의 陵墓인 陝西省의 茂陵墓에서 출토된 것으로 漢의 玄武文으로는 희귀한 草를 입에 文 意匠을 하고 있다. 거북등은 三重龜甲을 施文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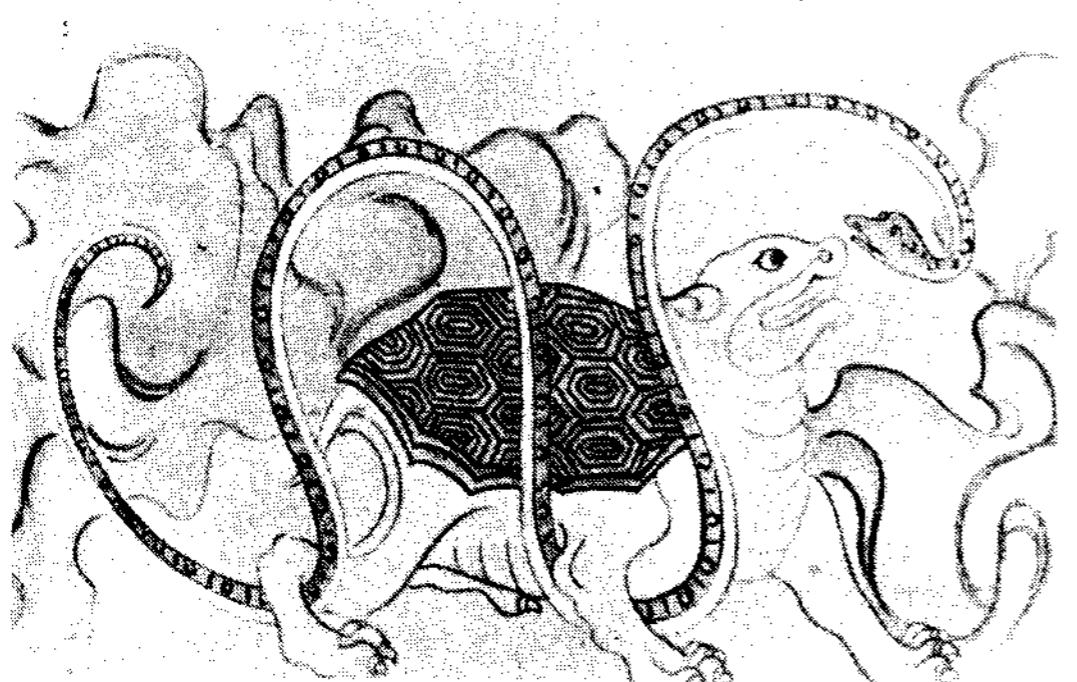
11. 曹圭和: 服飾美學, p. 185.

12. 白英子: 旗에 관한 연구.



〈그림 22〉 畫像石의 玄武 前漢

이것은 페르시아의 파르티아 王朝와의 접촉에 의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武帝는 中央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에 강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고 草를 입에 문 형태도 페르시아 미술에서 흔히 나타나는 意匠이기 때문이다.



〈그림 23〉 敦煌 442窟壁畫 模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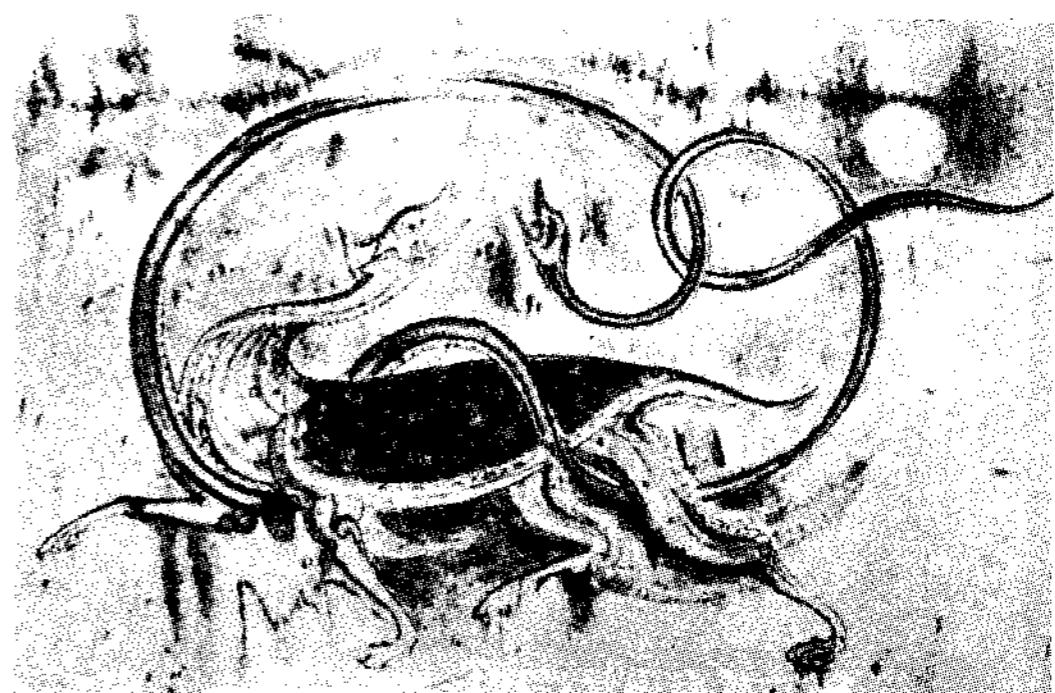
그림 23은 北魏의 敦煌壁畫의 龜甲文이 있는 玄武이다. 敦煌石窟은 서아시아의 영향이 짙은 代表的인 石窟로 거북이의 모습도 서아시아의 聖獸처럼 표현되어 있고 현무는 힘이 서려 있다.



〈그림 24〉 畫像墳의 玄武 6C. 中葉

그림 24는 河南省 鄭縣의 古墓에서 이용된 채색의 墳에 보이는 玄武이다.

뱀이 꾸불꾸불 여러번 감겨 있어 생동감을 나타내며 이것과 유사한 형태가 고구려의 遇賢里壁畫와 일본의 藥師寺 本尊臺座에서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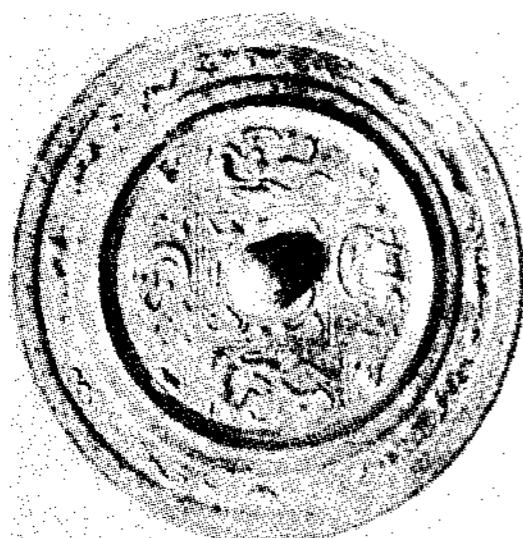
〈그림 25〉 遇賢里大墓의 玄武圖 6 ~7 C.



〈그림 26〉 藥師寺 本尊臺座의 玄武

그림 25는 고구려의 遇賢里大墓의 玄室의 玄武圖로 거북은 목을 뒤로 젓하고 뱀과 마주한 모습이 용맹이 넘쳐흐르며 四肢는 박력이 넘쳐 氣韻生動하며 사실적이면서도 그것을 超越한 寫意的인 迫力이 充滿하여 과히 東洋의 걸작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일본의 藥師寺金堂의 藥師如來의 臺座에 彫刻된 四神中에 현무가 있다. 이것은 그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그림 24, 25와 유사한 점이나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와 일본의 飛鳥時代의 예술과 깊은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더욱 8세기의 고분인 高松塚의 壁畫의 玄武와 비슷하므로 7세기말에서 8세기의 것으로 推定된다.

그림 27은 靑龍, 白虎, 朱雀, 玄武를 나타내는 唐時代의 四神鏡이다. 이 鏡은 方角이 있고 그 外側에 四神을 두고 그 外側의 圓周에 銘文을 새기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당시대의 「仙山四神矩文鏡」에도 보인다. 당시대는 중국의 문화 예술이 開花했던 시대이긴 했으나 唐初期는 漢時代의 요소가 많이 보인다. 鏡에 銘文을 새기는 形態도 漢時代의 鏡의 특색이기도 하다.



〈그림 27〉 方格四神禽獸文鏡
隋~唐



〈그림 28〉 四神鏡 唐



〈그림 29〉 鏡의 下繪 8C. 後伴



〈그림 30〉 고려 四神境



〈그림 31〉 金製裝身具

그림 27의 鏡의 四神은 漢代의 것에 비해 寫實的이며 자유로운 느낌이 있다.

그림 28에도 四神의 外側의 圓周에 銘文이 있고 거북의 몸에 균일하게 감고 있는 뱀과 玄武의 다리는 당시대에 와서 다소 단일화의 경향을 띠는 듯하다.

그림 29는 日本 正倉院에 있는 것으로 뱀을 빙빙 감고 있는 모습이 자유로움이 엿보인다.

그림 30은 우리나라의 高麗時代의 四神鏡이나 高句麗의 四神圖처럼 배치되지 않고 북은 玄武, 서는 봉황, 동은 기린, 남은 용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31은 고려중기의 金製裝身具에 보이는 玄武이며 手法이 精巧하고 重厚한 氣品이 있다.

IV. 龜甲文

거북에는 실제로 六角의 甲羅가 있고 이것을 모방하여 벌집의 斷面圖처럼 六角形을 연속한 무늬를 龜甲文이라고 한다. 거북을 造成하는데 있어서 사실감과 실제감을 느끼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龜甲의 표현방법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龜甲의 표현에 주의를 하게 되고 그 표현도 創造意志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機何學의 재능이 뛰어난 西아시아에서는 이미 先史時代의 彩色土器에 龜甲文이 보이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기반이 되어 龜甲文은 앗시리아, 바빌로니아, 파르티아 사산조시대에로 이어져 東아시아에로 전해졌다. 서아시아의 龜甲文은 漢時代에 西方의 파르티아朝(BC. 250 – AD 26)로부터 영향은 있었으나 정착되지 않고 六朝時代의 후반에 사산조美術의 영향으로 성행하게 된다.¹³ 西아시아에서 龜甲은 권위의 상징으로써 신비적인 의미가 합하여져 있으나 중국에 전하여져 西아시아의 의미는 사라지고 거북의 靈力과 長壽, 吉祥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文樣으로서 각종 미술품 특히 染織物의 文樣으로 흔히 표현되고 있다.

그러면 龜甲文의 실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림 4, 5, 6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북의 甲羅의 비늘형태의 장식은 초기형태이며, 그림 21의 龜甲形態를 거쳐 본격적으로 西아시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은 그림 22의 경우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거북이 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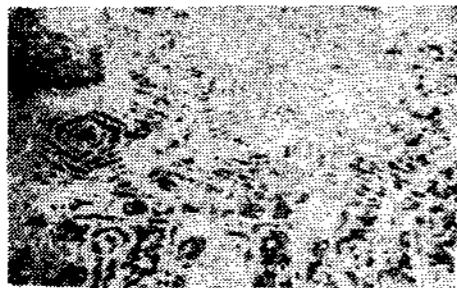
13. 江上綏: 日本文様の源流, 日本經濟新聞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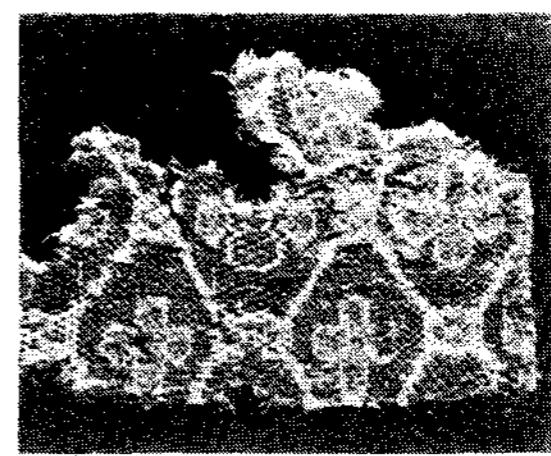
〈그림 32〉 上：雲岡第九窟岩床
下：龍門賓陽中洞岩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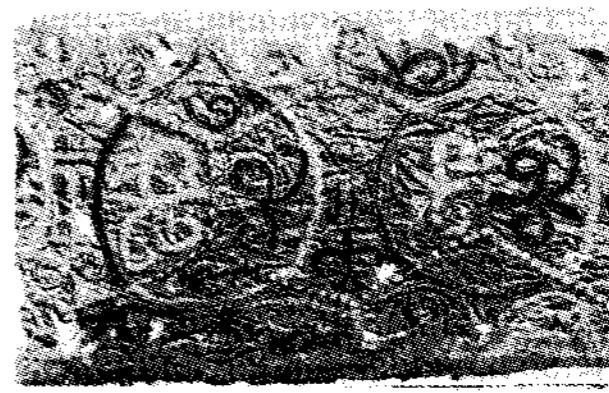
〈그림 33〉 白유리碗 이란出土



〈그림 34〉 유리碗 8C. 正倉院



〈그림 35〉 龜甲連續四弁花文毛織
後漢



〈그림 36〉 자수烈 北魏 5C. 末頃

를 물고 있는 意匠은 서아시아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며 여기서의 多重龜甲文은 西아시아의 사산조 美術의 영향이 짙은 雲岡石窟(5C末)과 龍門石窟(505~523AD)에서도 보이고 있다(그림32).

이러한 多重龜甲文의 표현은 北魏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파급되어 고구려의 遇賢里와 日本의 藥師寺의 玄武에도 多重龜甲文을 볼 수 있다(그림 23~26).

六朝의 초기에 晉의 詩人「潘尼」가 유리그릇에 대한 詩를 읊을 정도로 중국 西方으로부터 유리그릇이 들어와서 寶器로 珍重되었다.¹⁴

그림 33은 北이란에서 出土된 것으로 사산朝 페르샤에서 유행한 듯한 유리碗인데 이와 유사한 것이 일본 正倉院에도 보이므로 龜甲文의 西方 전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림 35는 「니야」舊址에서 出土된 後漢時代의 毛織이다. 긴 八角의 龜甲속에 四弁花文이 있다.

그림 36은 西아시아的인 色彩가 짙은 敦煌에서 出土된 北魏의 자수裂인데 龜甲의 표현은 點線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 또한 龜甲文의 西方 傳來를 示唆하는 것으로 이것과 유사한 예가 동시대의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림 37은 5C 말경의 古墳으로 추정되는 新羅 飾履塚出土의 신발인데 신발의 밑바닥의 青銅版에 點線으로 龜甲文을 표현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신발의 밑창에 龜甲文을 施文하여 惡靈을 쫓으려는 呪術的인 의미가 있었던 듯하다. 이와 같은 예(그림 38)가 일본에서도 보인다. 그림 38의 신발이 出土된 古墳은 우리나라의 영향이 짙은 고분으로 알려져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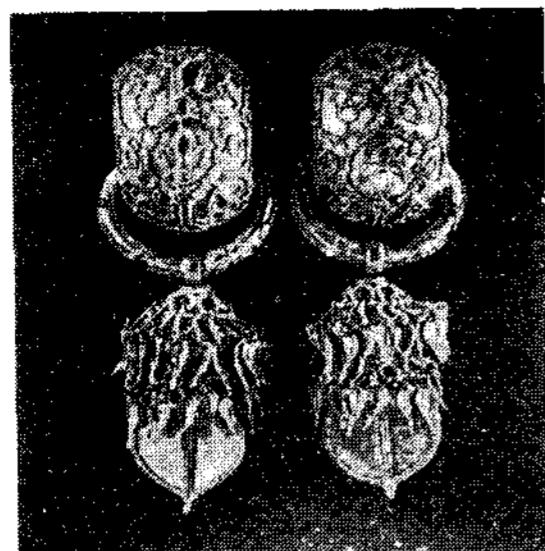
〈그림 38〉 신발 日本舟山
古墳出土 5C. 後伴

〈그림 37〉 신발 飾履塚出土
新羅 5C. 末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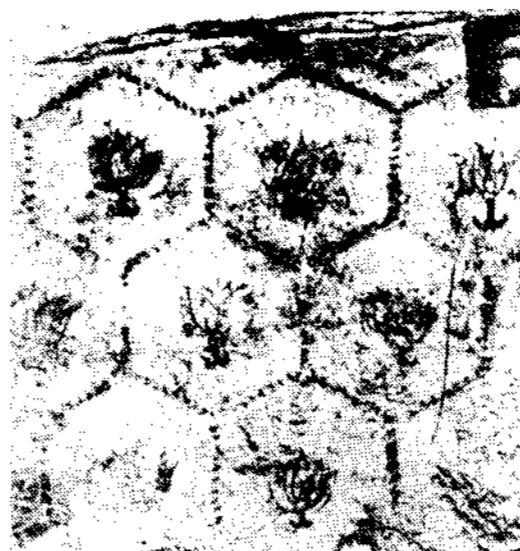
그림 39는 新羅 夫婦塚에서 出土된 太環耳飾으로 역시 龜甲文을 점의 연속으로 나타내고 있

14. 林良一：シルクロード. p. 164~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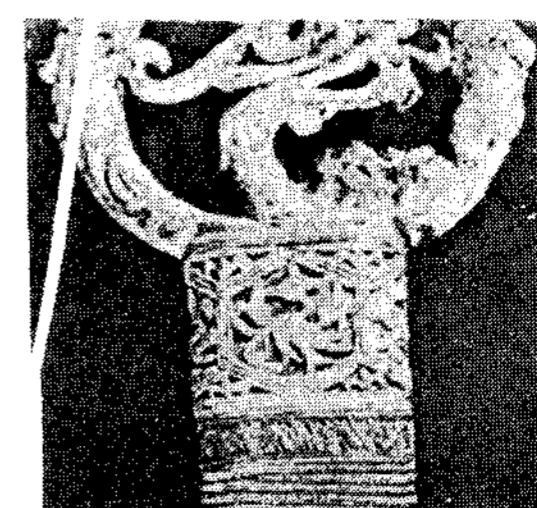
15. 江上綏：Ibid.



〈그림 39〉 金製太環 귀걸이
夫婦塚出土 5~6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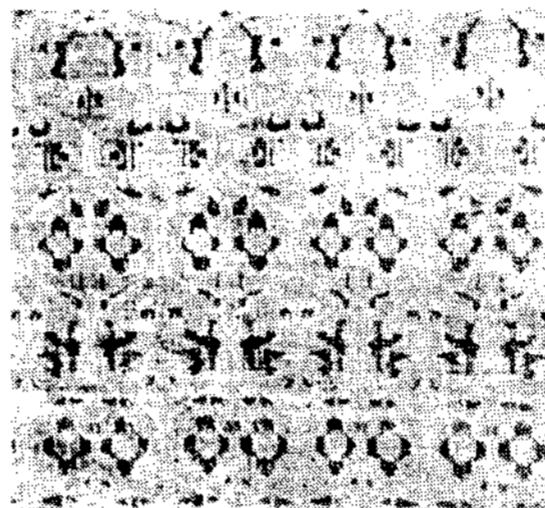
〈그림 40〉 天王地神塚壁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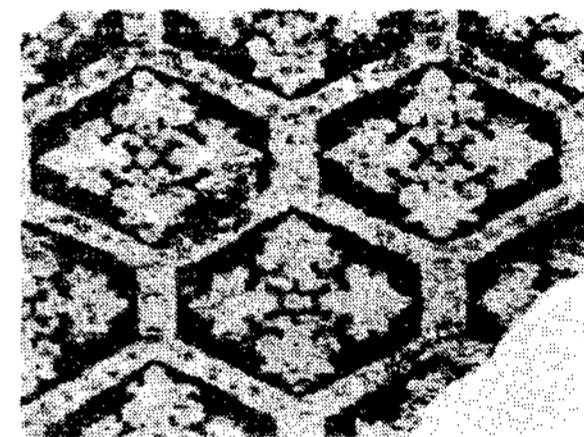
〈그림 41〉 鐸頭太刀 무영왕릉 출토
462~523年



〈그림 42〉 「歷代帝王圖卷」部分
(? - 673)



〈그림 43〉 蜀江錦 飛鳥
(552~644)



〈그림 44〉 紫地龜甲花文錦
奈良(645~793)

고 六角의 角마다에 小圓을 두고 있는 龜甲속에는 葉形花文을 배치하고 있다. 이것과 아주 흡사한 것이 日本 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어 新羅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고구려에 있어서 龜甲文의 예는 고구려의 龜甲塚後室의 壁畫와 天王地神塚의 玄室 壁畫(그림 40)이다. 兩方 모두 龜甲속에 蓮花를 두고 있다. 天王地神塚의 龜甲文은 上記의 그림 36~39와 같은 점의 연속으로 나타내고 있다.

百濟에서도 上記와 같은 龜甲文이 있었다. 武靈王(462~523AD)과 王妃陵에서出土된 鐸頭太刀(그림 41)와 王妃의 頭枕, 王의 足座에 龜甲文이 있다.

특히 그림 41은 王의 左側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太刀의 자루에 4개의 龜甲文이 있고 그 속에는 봉황이 장식되어 있다. 六角의 龜甲의 角마다에 小圓, 아시아적인 性格을 감안할 때 龜甲文의 東傳은 일반적인 흐름으로서는 六朝時代 후반의 사산조 美術의 영향이었던 듯하다.

西아시아에서 龜甲文은 주로 染織物에 나타나며 중국에 전래되어 石造技法에 이용되었고 織

物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림 42는 唐初期「閣立體 (?~673AD)」가 그린 「歷代帝王圖卷」의 陳의 文帝(557~589)이고 文帝의 着衣에 龜甲文이 있고 龜甲 속에 花文이 施文되어 있다. 역시 龜甲文은 王의 衣服에 使用될 정도로 高貴한 文樣임에 틀림없다.

그림 43은 일본 아스카時代의 蜀江錦의 龜甲文의 예이고 그림 44, 45는 모두 正倉院에 있는 것으로 전자는 紫色바탕에 龜甲文이 있는 锦이고 龜甲속에 花文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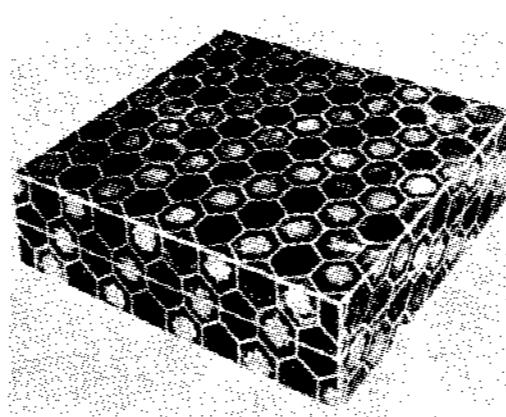
후자는 三重龜甲文 속에 六角龜甲을 가진 龜文과 花模樣을 施文하고 있다.

그림 46은 바둑판을 넣는 箱子이다. 龜甲文의 각 區劃마다 黑線을 넣고 페르샤의 영향하에 唐時代에 유행했던 圓花文을 그린 金箔과 銀箔의 花形을 일렬 건너 교대로 配置하고 그 위에 반투명의 거북을 붙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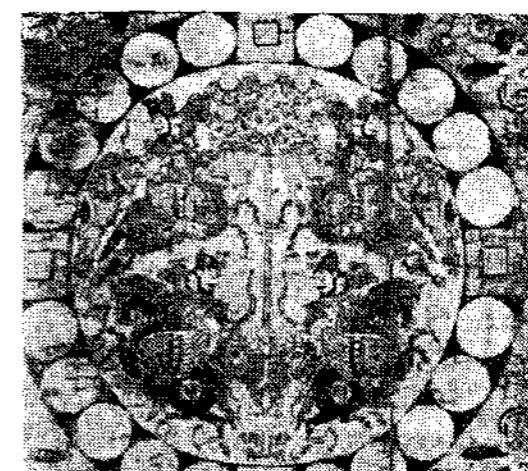
그런데 唐時代의 锦에 보이는 西方風의 동물 즉 有翼馬(그림 47)에도 龜甲이 보이며 龜甲이 있으므로 해서 有翼馬의 신비한 超自然力이 강조되어 보인다. 그림 47은 敦煌으로부터 발견



〈그림 45〉 龜甲龜花黃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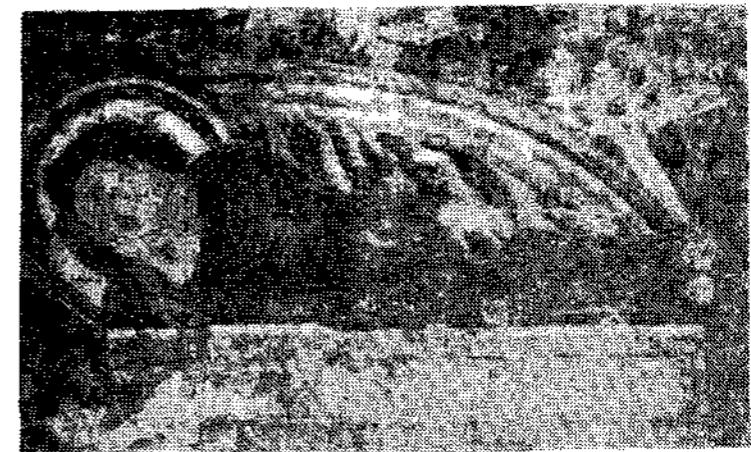
〈그림 46〉 龜甲文箱子 8C. 正倉院



〈그림 47〉 獅子狩獵文錦

〈그림 48〉 「毘沙門渡海圖」部分
唐後伴

〈그림 49〉 供養者像 기질 마야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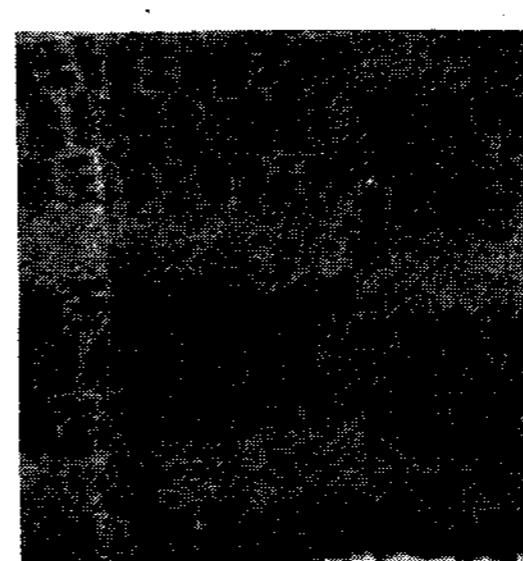


〈그림 50〉 仙涅槃圖 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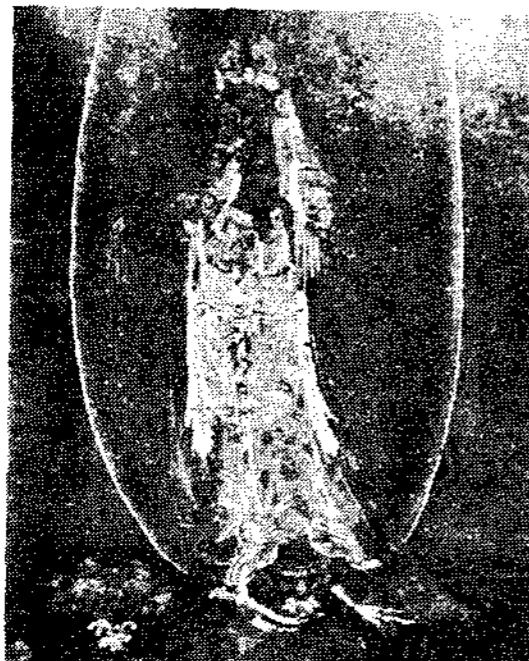
된 당대 후반의 絹繪로 바다를 건너는 昆沙門天의眷屬의 服裝에 龜甲이 보여 그 靈性과 權威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絹의 道인 天山南路의 龜茲는 北道隨一의 오아시스의 도시이다. 南道의 호-탄과 더불어 西域文化의 쌍벽을 이루는 곳이다.

특히 龜茲의 “기질”은 가장 西域的인 특징을 나타내는 곳으로 그림 49는 龜茲의 기질의 마야洞에 보이는 供養者像에 王族인 듯한 남녀의 모습이 보이고 왼쪽의 婦人은 龜甲文의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50은 絹에 그린 佛畫의 일부로 釋迦牟尼佛의 「涅槃」의 情景을 그리고 있다. 「涅槃」은 梵語로 「仏陀」의 죽음을 가리키고 衆生의 世界를 영원히 떨어져 不生不滅의 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그림은 佛이 침대 위에서 누운 모습을 그리지만 經典을 枕으로 하고 右手로 턱을 괴고 左手은 허벅지에 두고 있으며 頭部에는 圓形의 頭光, 背後에 身光이 있다. 누운 佛의 後部에는 수목을 두고 분위기가 정밀하다. 얼굴 모습, 衣褶의 描線, 寢臺側의 龜甲文樣 등의 繪畫技法으로부터 敦煌의 盛

〈그림 51〉 龜甲「王」字文錦
唐 돌판 아스타나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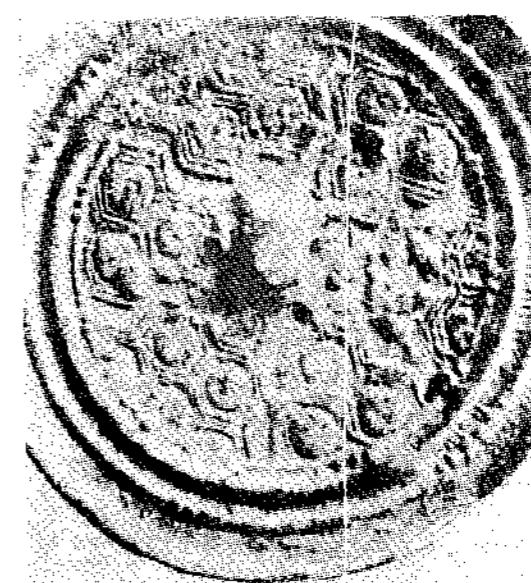
唐朝壁畫와 닮은 점이 많다. 따라서 이 그림도 盛唐時期의 작품으로 보인다. 그림 51은 龜甲「王」字文錦으로 돌판의 아스타나에서 出土된 唐의 織物이다. 이상과 같이 중국의 六朝·隋·唐時代와 일본의 飛鳥·奈良·平安時代의 染織品에 龜甲文이 사용된 예가 많은데 비해 동시대의 우리나라의 경우는 染織品의 실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前述한 그림 37, 39, 40, 41에서 보이는 것처럼 龜甲文은 三國時代에 애호되었던 文樣임에 틀림없으며 중국·일본과의 文化交流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三國時代에도 龜甲文은 染織品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써 고려시대의 佛畫의 佛의 服裝에 龜甲文이 보인다(그림 52, 53). 龜甲 속에는 花文 기타 다른 文樣을 施文하여 發展된



〈그림 52〉 仏畫 (13-14C.初)



〈그림 53〉 仏畫 (13-14C.初)



〈그림 54〉 고려銅鏡 13C.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려銅鏡(그림 54)에서도 龜甲文 속에 菊花文을 새겨 龜甲文의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龜趺의 龜甲文에도 花文·「王」字文 등의 文樣을 施文하고 있고 고려청자에도 龜甲文이 利用되는 등 龜甲文은 시대가 감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장식적으로 발전하였다.

V. 結 言

거북은 고대 중국인에게 灵(神)物, 辟邪, 神仙思想이라는 관념을 형성하면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미술품에 표현되었다. 실물을 통하여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거북(자라)의 단독형: 뱀을 감고 있지 않은 거북의 단독문으로 木器, 자수, 신선도, 동경, 水注, 龜趺 등에 주로 보이며 대체로 自然 및 다른 長生文과 함께 나타나 神仙思想을 엿볼 수 있었다.

2. 玄武形: 거북이 뱀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적인 動物이다. 이것은 서아시아의 동물

쟁투문의 영향이며 漢代에 와서 성행하고 그후 점차 寫實風으로 발전하나, 唐代에 와서 다소 단순하게 나타난다. 壁畫의 四神圖, 旗, 五行과 관련된 곳에 주로 나타나며 靈物, 辟邪의 사상을 推察할 수 있었다.

3. 龜甲文形: 서아시아 龜甲文이 漢代에 전해졌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東傳은 六朝時代였다. 서아시아에서 龜甲文은 主로 染織品에 보이며 中國에 와서 石彫의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雲岡·龍門石窟이며 이 時期에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하여졌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염직물보다 석조, 금속, 木器 등 다른 공예품에 많이 애용된 듯하며 일본의 경우는 飛鳥, 奈良, 平安時代를 거치면서 龜甲文이 有織文樣으로 정착하여 오늘날에도 애호되고 있다. 특히, 서아시아에서 龜甲文은 貴人の 衣服, 敷物 등에 주로 보여 권위의 상징 文樣으로 존재하였으나 중국에 전하여져서 서아시아적인 의미보다는 중국 고래의 거북의 의미가 합쳐져 吉祥文, 長壽文으로 발전하였다.

參 考 文 獻

- 渡辺素舟：東洋文樣史，富山房，1971.
渡辺素舟：中國古代文樣史，上卷，雄山閣，1976.
小杉一雄：日本の文様，社會思想社，1969.
小杉一雄：中國文樣史の研究，新樹社，1973.
林良一：シルクロード，美術出版社，1962.
林良一：シルクロードと正倉院，平凡社，1969.
出石誠彦：支那神話傳説の研究，中央公論社，1973.
大濱皓：老子の哲學，勁草書房，1962. 目
麥谷邦夫：初期道教における救濟思想，
龍田編集部：中國古代服裝研究，上卷。

- 林巳奈夫編：漢代の文物，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江上綏：日本文様の源流，日本經濟新聞社。
白英子：旗에 관한 研究，服飾。
白川靜：甲骨文の世界，平凡社，1972.
王充：論衡，平凡社。
干寶搜神記，竹田晃訳，平凡社。
楚辭。
詩經。
禮記。
史記。

- 漢書、後漢書.
- 晉書.
- 淮南子.
- 東京國立博物館：法陸寺獻納寶物目錄.
- 日本の美術：裝身具，至文堂，1968.
- “：金襯，至文堂，1968.
- “：織物，至文堂，1968.
- “：はにわ，至文堂，1968.
- “：服飾，至文堂，1968.
- 同和出版社：韓國美術全集：古墳美術.
- “：土器，土偶，瓦塼.
- “：石造.
- “：金屬工藝.
- “：壁畫.
- “：고려자기.
- 國立故宮博物院印行：故宮人物畫選華，故宮博物館.
- 國立故宮博物院印行：故宮文具畫選華，故宮博物館.
- “：故宮銅鏡”
- 國立中央博物館：韓國의 民畫.
- “：韓國의 民藝美術.
- 황호근：한국문양사，悅話堂，1978.
- 講談社編：中國の博物館：第1卷 陝西省博物館.
- ““：第2卷 湖南省”
- ““：第3卷 遼寧省”
- ““：第8卷 上海”
- 日本古寺美術全集 2，法陸寺と斑鳩の古寺，集英社.
- 講談社編，中國美術 第四卷，講談社.
- 講談社編，世界美術大系：日本美術，講談社.
- ““：中國美術，講談社.
- 世界美術全集 8：중국 I，平凡社，1950-1954.
- ““：중국 II，平凡社.
- 小學館(編)：漢唐の染織，小學館，1973.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expressive will of human beings by way of examining turtle patterns. Turtle represents spiritual, incantatory implications and the ideals of long life and of fortune.

From ancient to the present the turtle patterns have expressed various kinds of arts on these concepts.

The researchs on the examples of turtle

patterns are summed up as follows.

1. Single form of turtle shows a turtle wrapped by snakes and is generally regarded as a symbol of long life with respect to the mysteries of the Tao.
2. HyunMu type is of an imaginary animal which is wrapped by snakes.
3. Turtle shell type is hexagon accumulated like successive bee-hives.